

사모(思母) 10
- 참회(懺悔)

김 근 형(시인)

전망대 망원경 속 산등성이 넘어
갈망하는 그곳이 있으면만
갈 수 없는 두꺼운 벽에 막혀

한에 젖어 울부짖는 당신모습에
내 몸은 경련이 일고 까맣게 타오릅니다

당신 곁에서 살았던 삶을 되새겨 보며
그리움에 목매 당신께 가는 마음
내 온신의 말초 신경은 요동치며
감회의 눈시울이 젖어듭니다

구석구석 추억이 담긴
당신의 빛바랜 사진 한 장 있었더라도

참회의 눈물 적게 흘렸을 걸
꿈속의 당신 노도 같은 성냄에
한 낮 실오리 명줄을 움켜잡고 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위급한 상황에 가족과 함께 월남하지 못한 죄를 가슴에 안고 살아야했다. 자식이 집에 돌아오지 않아 기다리다 남으로 내려오지 못한 가족을 그리워한지 7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나르는 새들이나 헤엄치는 물고기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하늘길이나 강물이 있거늘 어찌 우리는 오도 가도 못하는 먼 곳이 되었다.

빛바랜 사진 한 장이라도 있었더라면 참회의 눈물을 덜 흘렸을 텐데 꿈속의 원망스런 얼굴을 떠올릴 때면 명줄을 잡고 울 수밖에 없었다.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어찌할 수 없어 그저 당신 곁에서 살았던 삶을 되새겨 보며 당신께 가는 마음을 잡을 수 없었다.

모든 일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바로 잡을 수 없고 었지른 물처럼 쓸어 담을 수가 없었다. 화자가 걱정을 한다고 해결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냉정하게 돌아앉아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다. 이제는 모두 잊어 버리고 지낼 만도 하련만 나이와 비례하는지 그리움은 깊어만 가고 있다.

生の 뒤안길에서

이 석 남(시인)

이 세상에는 형용할 수 없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믿었던 자가 배신하는 일도 있다. 남의 일을 돕고자 하나 도리어 오해 받는 일도 많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남을 해치는 일도 있다. 안 한일도 했다며 억지 부리는 일도 많으니 왜 이리 험난한 세상이 되었을까?

우리네 인생사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는 정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 세상을 너무나 제멋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도 섞여 있다. 검은 것은 검다하고 흰 것은 희다고 정직히 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은 것도 희고 흰 것도 검다고 하는 철면피하게 사는 부류의 사람도 존재하고 있다. 쓸모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쓸모없는 사람도 버젓이 활보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시가 좋아 시인이 되어 세상을 올바르게 정도(正道)를 걷고자 노력하는 사람이다. 허나 자기의 잘못을 은폐하려고 남을 중상 모략하여 내 마음을 뒤흔드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세상에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펼쳐져 진실하고 올바른 판단력을 지녔다면 별문제지만 이를 외면하고 명예와 재물을 축적키 위해 갖은 모략을 일삼아 세상의 가치판단기준을 흐트러트리는 자들을 나는 격멸한다.

인간은 단하나의 목숨(壽)만을 가지고 산다. 자동차 바퀴처럼 바뀔 끼울 수 없는 귀중한 생명이 아니겠는가. 살기 힘들다 하더라도 천지창조의 신이 내린 조화 속에 인류는 생존을 유지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인간은 누구나가 마음이 바쁘거나 몸이 바쁘더라도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슬픈 일이나 괴로운 일도 따르는 우리네 인생길이 아닌가, 나 혼자만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처럼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전혀 배려하지 않는 처신은 마치 자신의 존재를 땅에 묻고 사는 사람임을 스스로 자처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태어나 살다가는 인생일진데 그 누가 이 길을 피할 자 있을까, 정을 주고 사는 사람 정을 받고 사는 사람, 즉 유희덕(攸好德)이란 말과 같이 베품을 주고 사는 사람은 따스하게 감싸주는 천사의 마음이요, 세상의 소금의 빛이요, 광명으로 인도하는 사람은 얼마나 마음을 감동하게 한다. 그 누가 그 무슨 악행을 저질러도 내 자신부터 힘을 내자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해본다.

꼬부랑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한발 두발 내딛는 발걸음 이야말로 천금보다 값진 귀한 발걸음이다. 건강은 값진 보배요 하늘이 내려준 진주보다 귀중한 존재다. 우리의 삶은 하고 싶은 일도 다 못하고 가는 인생이다. 자기의 잘못을 솔직히 털어놓고 자숙하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 자기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인류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을 때를 말하지 않던가, 미지의 세계를 보라,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없이 광활하고 우아하게 우리 인간을 언제까지 영원무궁토록 존재하게 할 것인지 상상해 봐야한다.

나는 시골 태생으로 들판의 순수하고 맑은 공기와 산속에서 나오는 천연 약수를 마시며 천진난만한 시절을 보냈다. 가을 추수 때는 벼를 터는 탈곡기소리가 요란하고 순수한 보리밥에 고추장과 나물들이 우리가 자랑하는 신토불이다. 또한 늦가을 초가지붕 영마루에 영을 엮어 지붕에 올리는 농촌의 풍경을 지금은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농경사회가 점차적으로 산업사회로 변하면서 의식구조도 새롭게 변모하고 한층 우리 삶의 수준도 높아져 이제는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어 모든 일들이 투명성을 보이고 있다. 자기의 소신을 밝혀 만천하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등장함으로써 이사회를 이끌어 가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에 직면하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에 걸쳐 헤아릴 수 없이 복잡해져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강토를 어떻게 해야 굳건한 사회로 탄탄하게 다져 후세들에게 남겨줄 것인가를 우리 모두가 반성하고 냉철하게 각성해 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